

이소노카미·도요타(石上·豊田) 고분군

이소노카미·도요타고분군은 덴리시(天理市) 이소노카미초(石上町)·도요타초(豊田町)·벳쇼초에(別所町)에 소재하는 대형 군집분이다. 도요타(豊田) 구릉이라고 불리는 구릉 위에 총 200기 이상의 고분이 축조되어 있다. 북동쪽 가장자리의 메이한(名阪) 국도 가까이에 2기의 전방후원분이 나란히 입지하는데 분구 길이 107m의 이소노카미오쓰카(石上大塚) 고분과 분구 길이 110m의 우와나리쓰카(ウワナリ塚) 고분이다. 2기 모두 매장시설은 횡형식석실로 남쪽에 입구가 있고 분구에 돌출부라 불리는 방형의 돌출된 제사시설(造出し)을 가지며 주호(周濠)와 폭이 넓은 외제(外提)를 갖추고 있다.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6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 시기 전방후원분으로서는 대형에 속하고 모노노베시(物部氏)에 관계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배후의 구릉 상에는 소규모인 전방후원분·원분이 능선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고 대부분은 횡형식석실을 매장시설로 한다. 6세기대를 중심으로 축조되고 7세기 전반대까지 형성된다. 고분군은 20~30기 정도의 분포가 몇 개의 지군(支群)으로 나뉘고 있다. 그중 1966년, 1971년, 1975년에는 이소노카미키타(石上北) 지군, 이시미네(石峯支群) 지군, 호리노오(ホリノオ) 지군, 다키하라(タキハラ) 지군, 아미다하라(アミダハラ) 지군 등에서 발굴·조사가 시행되었다.

횡형식석실을 중심으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단야(鍛冶)에 관련된 유물이 출토된 고분이 눈에 띈다. 호리노오 2호분에서는 단야공구인 쇠집게(鉄鉗)·쇠망치(鉄鎚)가 출토되었고 이외에도 쇠창(鉄鏟)·쇠칼이나, 금환·은환·수정제 곱은옥·수정제 다면옥(切子玉)·천하석(天河石·아마조나이트)제 곱은옥이 출토되었다. 이시미네미나미(石峰南) 2호분에서 송풍구(鑪羽口)와 슬래그(鐵滓), 이소노카미키타 A5호분, 이소노카미(石上) B3호분, 다키하라 3호분 등에서도 슬래그가 출토되었다.

또 호리노오 4호분에서는 금동 장식마구·수정제 다면옥이 출토되었고 이외에도 스에키의 기형에서는 보기 드문 겹아가리 유공단지(二重甕)도 출토되었다.

이소노카미·도요타고분군의 남쪽에는 고분시대의 대형 집락 유적인 후루(布留) 유적이 펼쳐져 있다. 집락 내에서 왕성한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단야공구가 출토된 수혈주거나 유적 곳곳에서 슬래그나 송풍구가 조사되는 등 단야에 관여한 공인집단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후루유적의 공인집단이 이소노카미·도요타고분군에 매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